

2015. 12. 21. 월요일

대구환경공단 제8호

중 국 환 경 소 식 지

수석대표 이상대 (☎ +86 186-2606-1134 / kktrlove@hanmail.net)
부대표 김기곤 (☎ +86 186-2606-1194 / giraffeland@hanmail.net)
중국 강소성 의흥시 녹원로 501호 환보과기빌딩 B청사 403실. (☎:070-4137-8009)

1. 중국 소식 『2016년 중국의 공식 휴일(연휴)』

명 절	휴일날짜	휴일기간	대체 근무일
신정 (元旦)	1월1일 ~ 1월3일	3일	-
설날 (春节)	2월7일 ~ 2월13일	7일	2월6일(토), 2월14일(일)
청명절 (清明节)	4월3일 ~ 4월5일	3일	4월2일(토)
노동절 (劳动节)	5월1일 ~ 5월3일	3일	4월30일(토)
단오절 (端午节)	6월9일 ~ 6월11일	3일	6월12일(일)
추석 (中秋节)	9월15일 ~ 9월17일	3일	9월18일(일)
국경절 (国庆节)	10월1일 ~ 10월7일	7일	10월8일(토), 10월9일(일)

2. 중국 상식 『서기(書記)와 시장(市長)과의 관계』

- 중국 전역의 모든 행정구역에서 성(省)에는 서기(書記)와 성장(省長), 시(市)에는 서기(書記)와 시장(市長)이 있는 것 처럼 각 성이나 시에는 공식적으로 2명의 영도자(領導者)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국립대학인 광저우(廣州) 중의약대학 홍보용 책자에도 학교 서기△△교수와 학교 교장(대학총장)○○교수로 소개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두명의 영도자 중에서 공식적으로 누가 더 높고 그들이 하는 역할은?
- 중국에서 서기는 당 조직의 최고 영도자이고 성장이나 시장 그리고 교장은 행정조직의 최고 영도자이다.
- 일반적으로 서기(書記)는 성위(省委) 서기 혹은 시위(市委) 서기 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공산당 "△△성(시)위원회 서기"의 약칭이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중국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당 조직을 맡고 있는 서기가 구역 내 주요 사안을 최종 결정하며 성장이나 시장 또는 교장은 보통 부서기(副書記) 직을 겸임(兼任)하고 있어 서기 밑에 해당하는 2인자 이다. 그리고 서기가 성(省) 인민대표대회(人大) 주임(主任=도의회 의장) 직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성장, 부성장 등 주요 영도자의 인사권도 장악하고 있다.
- 현재 중국 전역에는 31개 성과 4개 직할시 중에서 24개 성시(省市) 인대(人大) 주임(主任)을 서기(書記)가 겸임하고 있다.

3. 대구형 물산업 기술, 100조원 규모의 중국 물시장에 진출하다.

= 한·중 환경공단(대구환경공단, 중이환과원), 4억 위안 규모 기업 합자계약 체결 =
 = 국내 최초 1억 위안 기술이전료 받고, 100억 위안 규모까지 성장목표 =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對 중국 수출 전진기지화로 기업유치도 가속화 =



중국 이싱시 장립군 시장, 중국 우시시 왕진건 부시장,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발전센터 신지위 부주임, 권영진 대구 시장(좌측에서 6번째), 대구환경공단 윤용문 이사장, (주)엔바이오컨스 이동완 대표, 박기환 물중심도시추진단장 등

한·중 환경기관(대구환경공단, 중국이싱환보과기공업원)이 기술력 있는 양국 기업을 발굴하여 합자를 지원하는 대구형 對 중국 진출 플랫폼이 마침내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14일 중국 장쑤성 이싱시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주)엔바이오컨스와 중국 장쑤필립환보공정유한회사 간 1억 위안 규모의 기술이전계약 및 양 기업과 대구환경공단, 중국이싱환보과기공업원 등 4자간 4억 위안 규모의 한중경영합자계약이 체결되어 황금알을 낳는 100조 중국 물시장을 대구형 물기술이 선점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엔바이오컨스(대표 이동완)는 기술 이전 대가로 국내환경기업 최초로 중국 장쑤필립환보공정유한공사(대표 소중평, 이하 장쑤필립)로부터 1억 위안(180억 원)의 기술이전료를 받고 한국 측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윤용문)과 (주)엔바이오컨스 및 중국 측 중국이싱환보과기공업원(주임 주옥봉)과 장쑤필립이 총 4억 위안(720억 원)을 출자해 중국 하수처리 전문기업을 설립한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중국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민간기업 합자에 참여하고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료까지 받는 계약을 이끌어 낸 것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첫 사례이다.

대구환경공단과 중국 과기부 및 환경부 소속의 중국이성환보과기공업원은 지난 해 7월 업무협약을 맺고 양국의 우수 물기업을 발굴해 합자계약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계약의 주인공인 양국 기업이 올해 4월 대구세계물포럼에서 대구시가 주최한 '한중 환경기업 교류회'에 참가한 이후 계약이 급진전되었다.

(주)엔바이오컨스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하여 자원화하는 건조기술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장쑤필립은 포기조 산기관 등 수처리설비를 제조·운영하는 기업이다. 두 민간기업에 한·중 환경 관련 공공기관까지 참여하는 합자기업은 하수슬러지 플랜트 설계·시공·운영 등 하수슬러지 처리 전반에 대한 사업을 통해 중국 하수처리시장 점유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 물시장이 수년 내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만큼 합자회사는 중국 전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수주하고 중국 증시 상장을 통해 100억 위안(약 1조 8천억 원)까지 회사 규모를 키워간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하나의 합자회사 설립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합자회사가 본격적인 중국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을 본격 수주하게 되면 관련 핵심 설비 및 기자재를 한국기업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이번 합자 계약식에 대구물산업클러스트 입주 예정인 기업들도 동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5만여 평 규모의 '한중 환경보호 하이테크장비 제조기지' 현판식이 열렸다. 이를 통해 한국 물기업의 초기 중국 진출 시 사무실 및 제조공장 등의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합자계약으로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트의 기업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대구환경공단 및 중국이성환보과기공업원이 플랫폼이 되어 기술력 있는 한국 물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들을 물산업클러스트로 유치함으로써 물산업 클러스트를 해외수출의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주)엔바이오컨스 이동완 대표는 "이번 계약이 대구시와 함께 노력하여 얻은 결과인 만큼 대구 물산업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해 본사 및 연구소를 대구로 이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쑤필립 소중평 대표는 "그 동안 (주)엔바이오컨스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1년여의 시간 동안 공을 들인 결과 오늘에야 결실을 맺었다"면서 "이 기술을 적용하면 중국의 하수처리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향후 중국 환경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간 대구시는 세계물포럼 개최 이후 해외 물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제 그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대구시는 국내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물산업클러스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이성시는 인구 124만 명에 면적은 2천38km²이고 중국 100대 현급 시 중 경제력이 6위이며 중국 내 환경설비의 80%를 생산·판매하는 지역이다. 이성시에 위치한 중국이성환보과기공업원은 212km²(6천400만 평)의 국가급 하이테크산업 개발구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환과원 내 입주 기업 1천800여 개가 있으며 10만여 명의 기술인력이 이들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4. 공기업 창조경제의 모델 『대구환경공단』 한국물산업 미래를 열었다.



《중국이싱국제환보전시관 內 한국기업 전용전시관》

대구가 14일 중국 정부기관과 한중기업이 참가하는 4억 위안(720억원) 규모의 합자회사를 만들어 중국환경시장에 진출한 것은 우리 수출역사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획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번 해외진출이 수출지원기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일개 지방공기업이 이룩한 새로운 해외진출모델이기 때문이다.

합자회사의 발단은 1년전.

중국은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하수처리장마다 비상이 걸렸다. 하수처리장의 슬러지와 하수처리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제조공장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중국환경부와 과학기술부의 직속기관인 중국이싱환보과기공업원(이하 환과원)은 선진국 여러 곳을 노크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았다. 한국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마땅히 파트너를 찾지 못했다. 모두 MOU를 맺고 사진만 찍었지 후속조치를 취한 곳이 없었다.

40여회나 한국을 방문하여 파트너를 찾던 환과원이 대구환경공단을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하수처리장을 기업들에게 이미 테스트베드로 개방해 20여개의 특허기술을 보유한 공단이 적극 나섰다. 하수처리장에 필수기계인 교반기와 탈수기, 계측기, 슬러지처리기술 등 다수기업의 기술개발을 도와온 공단이 그동안 다져온 수처리 실력을 발휘할 ‘호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윤용문 공단 이사장은 바로 미래전략처를 신설하고 중국 이성시에 2명의 직원을 파견해 중국시장 진출TF팀을 꾸렸다. 중국 진출희망 업체를 모아 4회에 걸쳐 간담회도 열었다. 기업대표와 손잡고 중국을 수십차례 방문해 마침내 100조 중국시장 진출의 물꼬를 텄다. 대구환경공단은 대구의 하수나 폐수처리만 잘하면 되는 관리형 공기업이다. 그런데 그런 지방공기업이 공기업의 한계를 넘어 R&D 기관과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을 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7월 6일 최경환경제부총리의 대구 수출제조기업 방문때 대구의 한 기업인이 미국 월마트 등에 진출하고자 부단히 노력중인데 누구와 접촉해야 할지를 도와주면 좋겠다며 해외진출 마지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참석한 산자부 관계자에게 수출지원기관이 좀더 기업 가까이 다가가 수출기업이 필요로하는 ‘커스터마이즈’(맞춤형)된 수출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가 말한 바로 그 ‘커스터마이즈’된 수출지원을 대구환경공단이 해낸 것이다. 대구환경공단은 수출지원기관이 아니다. 하지만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시장을 읽는 혜안으로 중국진출이라는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대구환경공단 역시 MOU만 맺고 사진만 찍었다면 또 기업과 함께 손잡고 끈질기게 다니지 않았다면, 중국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다면 이번 합자계약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다.

대구는 지금 물산업 해외전진기지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프로젝트인 물산업클러스트의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국비도 확보하고 대기업인 롯데케미칼도 유치했다. 내년이면 국가물클러스트 사업의 큰 그림을 그려 착공에 들어간다. 착공도 전에 핵심 콘텐츠를 채운 것이다. 대구환경공단 윤용문 이사장과 직원들의 발상전환과 집념이 대구 물산업, 한국 물산업 그리고 대구물클러스트와 대구의 미래를 열었다. 대구환경공단은 ‘신의직장’이라고 비판받는 그런 공기업만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지방공기업이 이룩한 창조경제의 전형이다. 해외진출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다. 대구의 중국 물산업 진출은 전국 물산업계와 중국, 나아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합자계약에 참여해 중국진출은 물론 180억원의 기술이전료까지 받게된 엔바이오컨스의 이동원 대표는 “물산업 클러스트요?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돈 벌어보세요. 물산업 클러스트는 저절로 성공합니다”라고 말했다. 공기업 개혁. 잘못된 것을 감사하고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데도 있다. 하지만 주어진 역할을 뛰어넘어 기업마인드를 갖고 도전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 대구환경공단 같은 사례가 바로 공기업 혁신이자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다.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정부와 많은 경제주체들은 대구환경공단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공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지말고 혁신의 주체로 서게할 때 한국형 창조경제는 엄청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자료출처 한국경제신문 12.17)